

2024년 국내 경제전망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alden0230@hri.co.kr)

- I. 들어가며
- II. 국내경제 전망
- III. 국내외 리스크 요인
- IV. 결론

1

■ 국문요약 ■

2024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금리 피크아웃(peakout)과 글로벌 교역의 개선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2%를 기록하며, 2023년도 (1.2%) 대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이 IMF,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기저효과(base effect)가 약해 기대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지속 가능성과 G2(미국 및 중국)의 동시 불황 등의 리스크 요인이 2024년도에도 이어져 국내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경제전망, 국내 경제전망, 글로벌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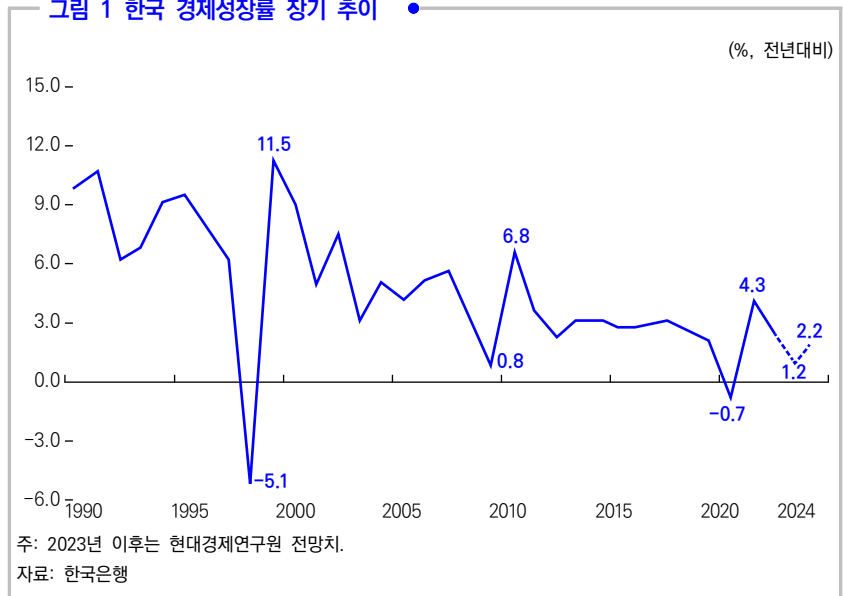
I. 들어가며

한국경제의 강점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한국경제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전년도의 부진을 만회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 IMF에 경제성장률은 -5.1%(전년동월대비)의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다음 해에 보란 듯이 두 자릿수(11.5%)의 회복세를 기록하며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위기를 겪은 다음 해는 용수철 같이 튀어 올라 극복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올해 위기를 딛고 다시금 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2023년은 위기의 해였다. 대부분의 전망 기관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에 따른 대내외 복합불황으로 경제 성적표는 IMF, 금융 위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1% 초반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국경제의 저력이 나타나, 올해의 부진을 모두 씻어내는 모습들을 보란 듯이 보여줄 것인가? 아쉽게도 기대보다 아쉬운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물가 고금리, G2(미국, 중국)의 동반침체 가능성 등 산적해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내년에도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1 한국 경제성장률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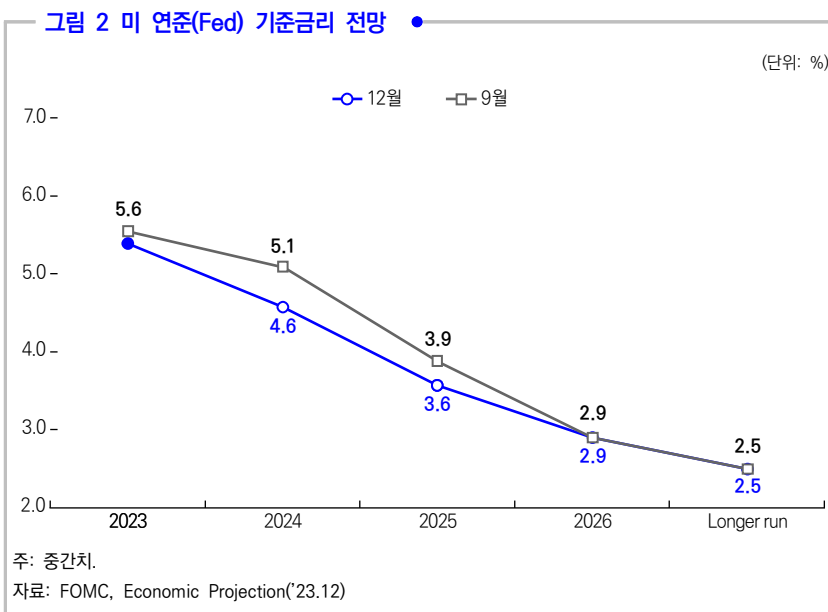
II. 국내경제 전망

2024년 국내외 경제전망에 핵심 요인은 주요국 통화정책의 피봇(pivot) 시기와 강도이다. 이는 금리 경로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과 교역의 회복 시기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 및 가전 등 내구재의 경우에는 다른 소비재보다는 금리 민감도가 높다. 이는 경제주체가 내구재 구입 시 대출 및 할부를 통해 구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경기 역시 금리 경로에 따라 내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외 금리 경로 향방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의 내수외수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전망의 배경

(1) 통화정책 피벗(pivot)에 따른 교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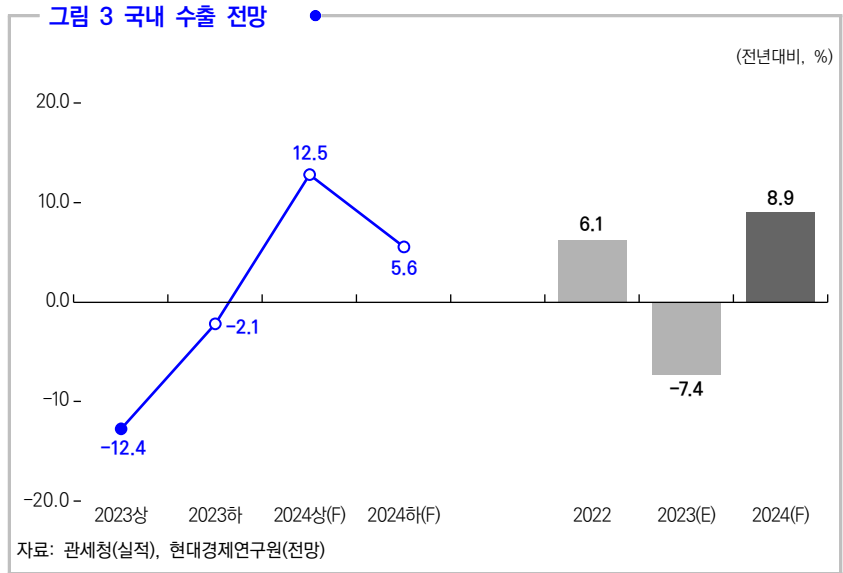
먼저,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를 살펴봐야 한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어야 여타 주요국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 1위국과의 정책 금리 및 시장 금리가 확대될 수록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도 하반기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르면 2분기부터 3~4번 정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12월 기준 미 연준의 정책금리는 5.50%(상단 기준)이다. 2023년 12월 FOMC에서 미 연준 위원들은 2023년도 말 기준금리는 5.4%(중간치 기준), 2024년도 말 기준금리는 4.6%로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한 이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유지하고, 하반기에 0.25%p씩 3~4번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개시하면서, 한국은행도 2분기 또는 하반기에 통화정책을 피벗(pivot)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 금리 인하가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금융 여건이 개선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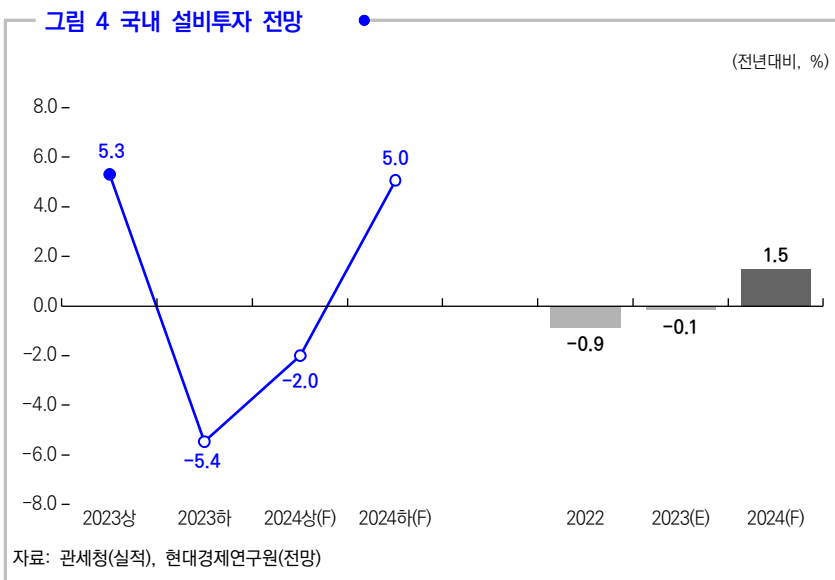
시작하면서 가계의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함께 상품 교역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신흥국의 수출 경기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개선

2024년도에 금리의 피크아웃으로 금융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내수(소비와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물가·고금리로 부진이 지속되었던 민간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보다는 소비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면서 민간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 하락에 따른 소비자 심리 개선, 양호한 고용 여건으로 소비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조짐이다. 다만, 누증된 가계부채와 이자상환 부담은 민간 소비 회복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조달 비용의 하락 등 전반적인 투자 여건의 개선으로 설비투자 역시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설비투자는 업황 악화 우려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등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2. 국내 경제전망 및 평가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하면, 2024년도에는 국내외 주요국의 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과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도의 경제성장률이 1953년 이후 5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24년도 경기 반등 폭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통 경제에 강한 충격이 온 다음에는 기저효과(base effect)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에는 -0.7%를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4.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0.8%의 낮은 성장률 이후 2010년에는 6.8%로 크게 반등하였다. 따라서, 2023년도에 1% 초반대의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2024년도에는 평균 정도의 성장세인 2% 초반세를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 아쉽다.

표 1 2024년 지출부문별 경제전망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2024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	2.6	0.9	1.5	1.2	2.3	2.1	2.2
민간소비 (%)	4.1	3.1	1.3	2.2	2.0	2.4	2.2
건설투자 (%)	-2.8	1.8	0.5	1.2	-0.5	1.5	0.5

III. 국내외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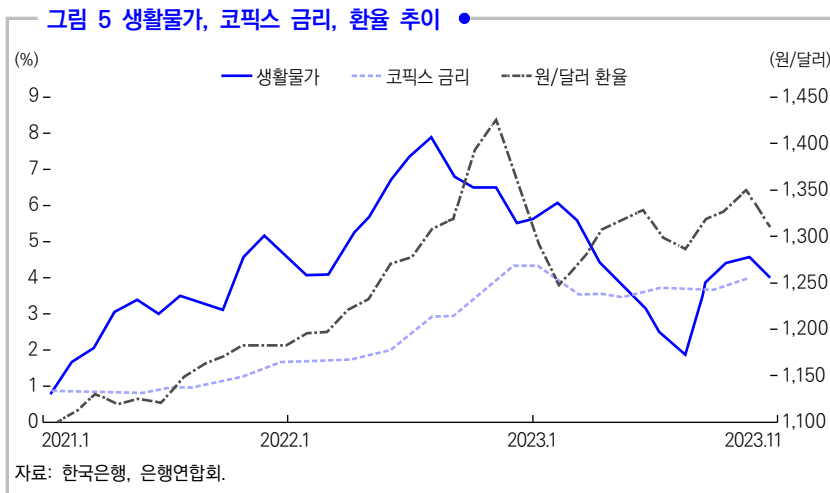
구 분	2022년 연간	2023년			2024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	-0.9	5.3	-5.4	-0.1	-2.0	5.0	1.5
경상수지 (억 달러)	298	24	250	274	120	300	420
무역수지 (억 달러)	-478	-263	24	-239	21	123	144
수출증가율 (%)	6.1	-12.4	-2.1	-7.4	12.5	5.6	8.9
수입증가율 (%)	18.9	-7.8	-12.5	-10.2	3.0	2.6	2.8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2023~2024년 전망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내년도 국내 경기 반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산적해 있는 리스크 요인이 내년도 국내 경기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경제를 짓누르던 3高的 지속 가능성, 미국·중국의 동반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등의 국내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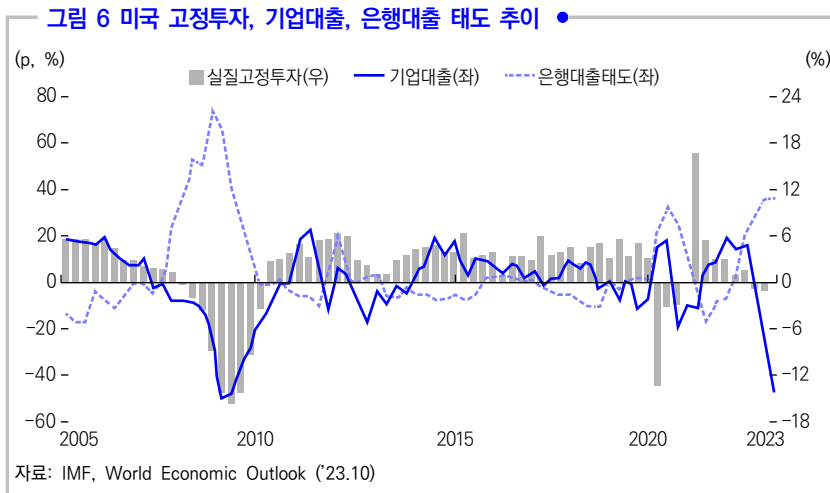
1. 3高的 지속 가능성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기가 현재 타이트한(tight) 노동시장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미 연준이 금리를 2022년 3월부터 5%p가량 단기간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의 노동수요는 견조하다. 노동수요가 높아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비용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게 된다.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 고물가 장기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수록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국내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해 국내 고물가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미국의 금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악순환을 유발해 국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2. G2(미국, 중국) 동반 경기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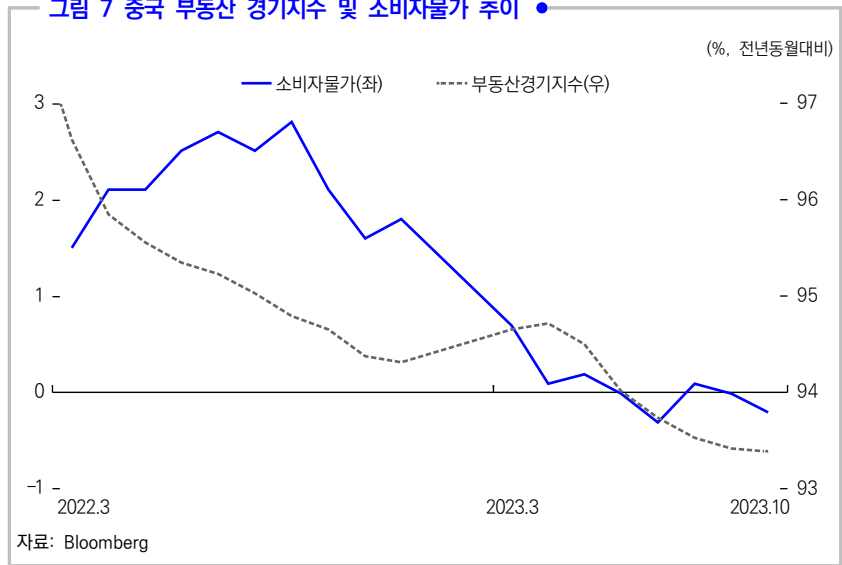
또한, 세계 GDP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G2(미국, 중국)의 동반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이야 워낙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화정책 긴축의 누적효과로 경기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은행은 경제주체가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보수적인 대출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경제 내에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미국 경기의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투자 개선은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시장 부진은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27개월 연속 하락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 도래¹⁾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 역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은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지원에 대한 보수적인 스탠스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중국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G2의 경기가 휘청거리면, 글로벌 제조업과 교역도 회복하는데 지나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세계 GDP의 1위와 2위인 미국과 중국이 경기 침체로 대외 수요가 감소하면 글로벌 교역의 회복도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내년도 기대되는 국내 수출 경기의 회복도 이루어지 않을 것이다.

그림 7 중국 부동산 경기지수 및 소비자물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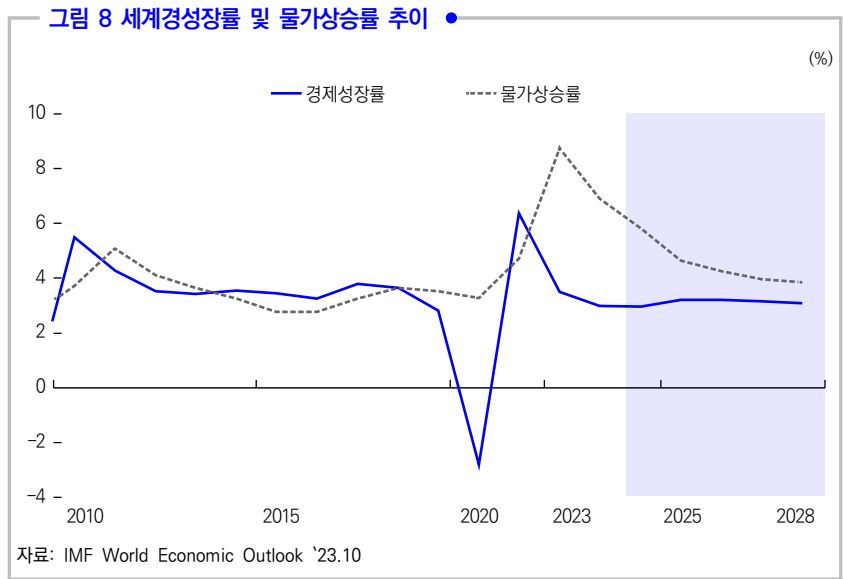


1) 민스키 모멘트: 부동산시장 위축 → 기업부실 심화 → 경제심리 냉각 → 우량자산매각 → 부동산시장 추가 위축 → 위기발생

3.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이러한 리스크들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세계경제는 2024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3고 현상의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G2 경기침체,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 회복이 지연되어 신흥국 경기까지 둔화되면, 2024년도 글로벌 경기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된다.

특히, IMF는 2024년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저물가, 중속성장의 추세가 나타났으나, 2024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실질)과 물가상승률은 역전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²⁾ 이는 국내외 경기는 향후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암시한다.



IV. 결론

내년도 국내 경기여건은 올해보다는 개선될 소지가 다분하나, 현장에서 경기의 온기를 느끼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산적해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는

2) 2024~2028년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4.4%이나, 2010~2019년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3.7%로 물가상승률(3.5%)보다 높다.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다. 분명 한국경제는 견고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 이상의 경기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이 민간 경제주체들에게는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1. 2024년 국내경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23.9
2.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23.10